

석사학위논문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에 나타난
딤즈데일의 죄와 구원

지도교수 김 경 님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양 자 미

2004년 월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에 나타난
딤즈데일의 죄와 구원

*Sin and Salvation in Dimmesdale of
N. Hawthorne's The Scarlet Letter*

지도교수 김 경 님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양 자 미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에 나타난
덤즈데일의 죄와 구원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영 어 교 육 전 공

양 자 미

상기자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2004년 월 일

목 차

Abstract ii

I. 서론 1

II. 『주홍글씨』에 나타난 호손의 죄악관 6

 1. 딘즈데일의 죄의 양상과 그 전개상 8

 1) 딘즈데일과 헤스터와의 관계 8

 2) 딘즈데일과 칠링워스와의 관계 10

 3) 딘즈데일과 퓨리턴 지역사회와의 관계 12

 2. 딘즈데일의 갈등과 구원의 문제 13

 1) 딘즈데일의 갈등 13

 2) 딘즈데일의 구원 27

III. 결론 40

참고문헌 45

국문초록 47

*The Sin and Salvation in Dimmesdale of
N. Hawthorne's The Scarlet Letter*

Yang Ja-Mi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Mokpo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Kyung-Nim)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problem of sin, agony and salvation in Dimmesdale of The Scarlet Letter. To achieve these aims, this paper deals with Hawthorn's obstinate concern with guilt and the effects of guilt on the human psyche. It analyzes the characterization of Dimmesdale who clearly suffers from an excess of self such as self-condemnation, self-abnegation and self-loathing which are the stimulants of his psychic life.

This paper consists of three parts : Introductory part, Main part and Conclusion. In the introductory part, the general drifts of New England in the 17th century and the aspects of puritanism are described. Main part consists of two sections including Dimmesdale's sin and fall and his conflict and pursuit for salvation. In conclusion part, it is argued that Hawthorne researches the universal human issues of sin and salvation from the viewpoint of orthodox Calvinism with the peculiar American background. He shows many immoral problems through The Scarlet

*Letter that have been derived from the attributes of human sin. What is most important in *The Scarlet Letter* is that once rescued from God, he wins the love of God forever as Calvinism says.*

*This paper emphasized that Hawthorne's major characters are interdependent as part of a configuration and the restricted setting of the puritan society in the 17th century rather helps to give the book the remarkable unity. In particular, it shows that the complex interrelationships of Hester Prynne, Dimmesdale, Chillingworth and the puritan community yield a rich texture to the structure of *The Scarlet Letter*. In addition, it describes that Dimmesdale undergoes worlds of penance, but it is penance without penitence because he is not willing to sacrifice the public image of himself.*

Accordingly, this paper tries to prove that Hawthorne's point of view was in line with orthodox Calvinist thinking and his criticism of New England Puritanism resulted from his understanding that the Puritanism of his day was distorted if it was viewed from the view of orthodox Calvinism about which he had a strong conviction.

Finally, the author thinks that Hawthorne criticized the contradictions in those days through his characters including Dimmesdale from the view of orthodox Calvinism and illuminated the way of right life by suggesting the meaning of true salvation.

I. 서 론

미국문학의 거장 나다니엘 호손(*Nathaniel Hawthorne 1804-1864*)은 19세기 중엽 미국 문예부흥기의 대표적인 소설가이다. 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의 문제들을 자신만의 독특한 신앙관 아래 다양한 기법과 필치로 심도 있게 그려낸 작가라 할 수 있다. 그는 모든 작품에서 엄격한 청교도 사회를 소재로 하여 인류의 영원한 과제인 선과 악의 문제, 죄와 영혼의 문제를 심리적인 수법으로 다루고 있으며 고루하기 짝이 없는 청교도주의(*Puritanism*)의 전통속에서 예리한 상상력으로 인간의 죄의식, 죄의 문제 등을 심리적 측면으로 날카롭게 파헤치는데 기여했다. 호손이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의 생활상을 그의 소설의 주요 주제로 삼은 것은 전통적으로 엄격한 청교도였던 그의 조상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1804년 7월 뉴잉글랜드지방의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 살렘(*Salem*)에서 태어난 호손은 전통적 청교도 가문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엄격하고 철저한 청교도 신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했다. 호손의 이러한 면은 무엇보다도 그의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있다. 그 중에서도 그의 대표작인 『주홍글씨』(*The Scarlet Letter*)는 1640년대의 보스턴(*Boston*)식민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재로 하여 청교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억압받고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청교도주의에 대한 회의와 비판을 담고있는 역사적 의의가 큰 작품이다. 또한 이 작품은 외국문학의 답습이 주류를 이루던 19세기 미국문단에서 나온 첫 번째 상징적 소설로서 당대까지의 작품 가운데서 가장 미국적인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간통이라는 비도덕적 사건을 중심으로 인간의 외면보다는 내면을, 육체보다는 정신을, 행동보다는 심리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1640년대 뉴잉글랜드지방의 엄격한 청교도들의 시각으로 묘사한 소설로써 뉴잉글랜드 없는 호손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호손과 청교주의가 만연했던 17세기 뉴잉글랜드의 관계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17세기 뉴잉글랜드 사람들은 엄격한 칼빈주

의(Calvinism)를 신봉하는 청교도들로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총, 선과 악, 죄와 구원 등의 문제로 고민하며 철저한 금욕 생활에 힘썼다. 당시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 자신들만이 신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당시의 청교주의란 정부와 경제적 환경, 그리고 개인적 행동에 있어서 안정을 제공하는 일종의 종교적 신념이었으며 절대적인 신권통치와 인간의 선천적인 타락을 강조하는 교리를 그 기본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완벽한 청교도 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 철저히 교육했으며 고도의 절제된 생활을 했다. 그들은 칼빈주의에 따라 인간의 모든 범죄는 아담(Adam)의 원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선과 악은 인간의 마음속에 공존한다고 여겼으며 그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은 인간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되지만 구원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과 자비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었다. 즉 인간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죄와 구원의 문제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므로 인간의 의지는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교도 본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으로 믿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급부 현상으로 그러한 노력은 결국 사랑 없는 율법사회의 모습을 갖게끔 했기에 이들로부터 기독교교리를 어긴 자에 대한 관용이나 사랑을 기대한다는 것은 힘들었다. 그런 청교도인들에게 있어 죄에 대한 문제는 삶의 다른 어떤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호손 역시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당시의 변질된 청교도 사회의 모습을 견고한 정통 신앙의 관점에서 직시하면서 실제 삶과 일치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작품 속에서 말하고자 하였다. 이 점에 대해 스피러(Spillar Robert)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호손의 소재는 뉴잉글랜드의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조상들의 삶에 대한 윤리관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거의 도덕적인 비유들이었다. 그러나 그의 소재에 대한 작가 자신의 태도는 편견이 없거나 비판적이

거나 회의적인 보통의 예술가다운 태도였다. 대부분의 그의 작품의 중심 주제는 신학적인 문제로서의 죄가 아니라 오히려 초기 식민지 시대 삶에서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에서 오는 심리학적 영향이었다.

Hawthorne's material was the ethical view of life of his Calvinistic New England ancestors, and his tales are almost always allegories with morals attached, but the author's own attitude toward his material is usually that of the artist: detached, critical, skeptical. The central theme of most of his stories is not sin as a theological problem, but rather the psychological effect of the conviction of sin on the lives of the early colonists.(스필러 79)

물론 호손 역시 어려서부터 청교주의 사상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의 무의식 속에는 정통 청교주의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 역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원죄의 개념들을 전통적인 청교도 교리로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정통 청교주의 신앙이 호손에게 확실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당시의 청교도 사회를 비판하고 죄에 따른 구원의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호손은 왜 청교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가지게 되었을까? 아마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그는 자기 조상들인 청교도들의 과오에 대해 상당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조상들이 범한 죄에 대해 어느 정도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는 『주홍글씨』의 ‘세관’(The Custom House)에 잘 나타나 있다.

... 케이커(Quaker)교도들이 훌륭하게 증명하고 있듯이 가혹한 박해자이기도 했다. 그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 기억하고 있어서, 그들 종파의 한 부인에 다하여 가혹하게 행동한 사건을 기술하고 있었다... 죽음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확실히 마녀들의 피가 그의 몸 위에 오점을 남기고 있다고 말해도 될 것이다... 그러한 나의 조상들이 후회하여 그 잔학에 대하여 신의 용서를 빌 마음이 생겼는지... 어떤지 나는 모른다. 어쨌든

나는 지금 이것을 쓰면서 그들의 대표자로서, 여기에 그들 때문에 그 수치를 짊어지고 그들 때문에 초래되고 있는 저주가 앞으로 해소되도록 간절히 빌고 싶을 뿐이다. . . .

. . . *He was likewise a bitter persecutor, as witness the Quakers, who have remembered him in their histories, and relate an incident of his hard severity towards a woman of their sect . . . I know not whether these ancestors of mine bethought themselves to repent, and ask pardon of Heaven for their cruelties: . . . At all events, I, the present writer, as their representative, hereby take shame upon myself for their sakes, and pray that curse incurred by them. . . .*(79)

또 다른 이유로는 권위적이며 형식적이고 위선으로 가득 찬 17세기 당시의 지배계층 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들과 율법에 얽매여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청교도 사회의 문제점 등이 호손에게 비판의식을 가지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주홍글씨』는 이러한 호손의 비판의식이 잘 반영된 작품으로 뉴잉글랜드 사회의 청교도주의를 시대적, 윤리적 배경으로 세 명의 주인공의 죄와 그들 행위의 결과를 그린 이야기이다. 헤스터(*Hester Prynne*)는 자신의 죄를 상징하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달고 이드러난 죄(*Revealed Sin*)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된 고립의 생활을 한다. 칠링워스(*Roger Chillingworth*)는 죄인에 대한 벌을 하느님의 심판에 맡기지 않고 자신이 벌하려는 복수의 집념에 사로잡혀 딴즈데일(*Arther Dimmesdale*)을 괴롭히는 인간성의 한계를 벗어난 용서받지 못할 오만의 죄(*Unpardonable Sin*)를 범하게 된다. 그리고 딴즈데일은 헤스터와 함께 범한 1차적인 간음의 죄 자체보다도 그 죄의 사실을 감추려는 비겁과 위선의 죄(*Concealed Sin*)를 저지른다.

본 논문은 이 세 명의 주인공들의 죄의 양상을 연구하고 그들의 죄의식의 상호연관성을 비교·검토하며 이 죄인들 중에서도 특히 자신의 죄를 세상에 밝히지 못한 채 죄악감에 사로잡혀있는 딴즈데일이라는 인물의 심리적 갈

등의 원인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17세기 퓨리턴시대의 보스턴이라는 지역사회가 이들 주인공들의 고뇌와 복수 그리고 인정의 생활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를 탐구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주홍글씨』에 나타난 호손의 죄악관

『주홍글씨』에서 호손은 더 큰 병위를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한 깊이를 발견하였다. 이 작중 인물인 헤스터 프린과 그의 애인 딘스데일목사는 호손의 사색의 테두리에서 빠져나와 산 인간이 된 최초의 인물이다. 이 작품의 테마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범하여진 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몇몇 사람들의 생활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데 대한 혼한 테마다. 여기서 그 죄란 간통죄다. 그러나 작가 호손은 그 죄의 영원한 참회로서 주홍글씨A를 가슴에 달기를 요구하는 청교도적 사회의 절대적 윤리에 동조하고 있지 않다. 이보다 한층 높은 그리고 그가 본능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거의 이교도적인 도덕 수준에서, 헤스터는 부단히 공중 앞에 자백함으로써 신을 무서워하는 청교도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종의 순결성과 힘을 얻고 있다. 한편 딘스데일 목사는 정신적 지도자로서 세상에 나타나는 동안, 헤스터와 같이 저지른 죄를 감추고 있어 도덕적인 피해를 경험하다 마침내 육체의 파멸과 죽음을 초래하고 만다. 이상하게도 이 삼각 관계이— 제삼인물이며, 배반당한 남편 로저 칠링워스는 작중의 악한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칠링워스는 젊은 목사에게 거의 최면술적인 억제를 행사하여 교묘하게 그의 파멸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호손의 죄악, 즉 인간 심정의 침해라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상한 이야기 속에선 청교도 사회의 도덕율은 사회적 복합의식으로 화하며, 이에 대하여 현세적 사랑이라는 자연 도덕율은 반항하고 있다. 사회적인 죄를 범한 이 두 주인공은 그들의 시련으로 해서 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그런 반항을 하지 못한 데 비극이 있다. 기독교적 비극으로서 보면 이 이야기의 형식은 인간 타락이라는 테마로서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구제는 신을 인식하는 데서보다 악마를 인식하는 데서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종교 제도에 의하면 헤스터는 물론 영원의 고뇌를 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일면 희랍적인 비극이다. 왜냐하면 헤스터는 인간이 만든 법률에 반항하여, 그 비극적인 결함 때문에 결국엔 파멸되나 동시에 정화되고야 말 비극적인 숭고성에까지 도달한 지상의 여인이기 때문이다.

그자신의 모호한 입장은 이 짧고도 완전한 예술작품 속에 유감없이 나타나 있다. 작가도 그의 소재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작중 인물로 하여금 각자의 입장을 진술하게 하여 그들 행동에 대해선 심미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을 뿐이다. 그의 도덕적

인 무관심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완전한 것이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윤리상의 완전한 회의주의자가 되었으며, 인간 의지의 모순이 자체의 파멸을 초래하고 있음을 냉정히 관찰할 수 있었다. 그는 헤스터를 처벌하는 데 있어 사회와 전통적 신앙에 찬성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작가뿐만 아니라 모든사람이 헤스터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청교도 사회의 대표적인 인물 유형 중의 하나인 덤즈데일은 영국의 명문대학인 옥스퍼드(Oxford)에서도 명성이 높은 지성과 민감한 감수성을 함께 갖춘 종교적 이상주의자로서, 신대륙에서의 이상 사회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온 청교도인에게 종교적 감화를 주는 덕망 있는 목사이며 존경을 한 몸에 받고있는 정신적인 지도자이다. 다음에 나오는 그에 대한 표현이 당시의 그를 잘 말해준다.

. . . 이 젊은 목사는 영국의 어느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당시의 신학문을 이 미개의 황무지에 전하기 위해 건너온 사람이었다. 그의 웅변과 종교적인 정열은 이미 목사로서의 유망한 앞길을 나타내고 있었다 . . . 대중 앞에 나서서 설교를 할 때면 신선하고 향기 높은 이슬처럼 순결한 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것은 여러 사람의 말대로 천사의 말과 같은 영향을 그들에게 주었다.

. . . a young clergyman, who had come from one of the great English universities, bringing all the learning of the age into our wild forest-land. His eloquence and religious fever had already given the earnest of high eminence in his profession . . . coming forth, when occasion was, with a freshness and fragrance, and dewy purity of thought, which, as many people said, affected them like the speech of an angel.(149-150)

그러나 그런 덤즈데일이 간음죄를 범하게 된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은 일이 목사인 덤즈데일에게 일어난 것이다. 덤즈데일이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이지만 그 역시 인간으로써 본능적인 면도 가지고 있으며 신앙심 깊은

목사인 그도 구원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타고난 죄의 본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때의 자신의 격정에 못 이겨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인간사회에서 아무리 학식 있고 권위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 이후 죄의 본성을 타고났으며, 그렇기에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로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호손의 칼빈주의 신앙관이 잘 나타나있는 것이다. 목사이기에 자신의 간음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그의 갈등양상은 작품의 내용 전개에 큰 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1. 덤즈데일의 죄의 양상과 그 전개상

1) 덤즈데일과 헤스터와의 관계

헤스터는 간음의 상징인 주홍글자 'A'를 가슴에 단 채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된 채 온갖 굴욕을 인내와 봉사의 정신으로 극복함으로써 자기 죄를 승화시켜 구원의 실마리를 찾는 여인이다. 냉혹한 청교도사회에서 갖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헤스터의 희생으로 인해 막상 덤즈데일은 그 죄가 감추어져 법률에 의한 외형적인 형벌을 면하고는 있지만, 덤즈데일에게 있어 헤스터의 존재는 항상 위선의 죄를 상기시켜 주며 죄의 고백에 대한 갈등을 하게 하는 죄의 파트너이다. 상대적으로 헤스터에게 있어서 덤즈데일의 존재는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며 고통도 견딜 수 있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다. 불륜의 죄를 헤스터와 함께 저지른 덤즈데일목사는 헤스터의 가슴에 주홍글자 'A'를 단 후부터 그 고통은 더욱 표면화 되어간다. 그는 자기의 죄를 뚜렷이 밝히고 떳떳하게 벌을 받고있는 헤스터의 입장을 부러워하면서도 성직자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위선의 일생을 살아가는 자신에게 심각한 죄의식의 갈등을 느낀다. 그로 인하여 자기의 위선된 심정의 고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뻔히 알고 있는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타고난 성질 때문에 침묵을 지키는 지도 모릅니다. 어찌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비록 죄는 범했지만 하느님의 영광과 행복에 대한 열망이 식지 않아 결국

사람들 앞에서 추악하고 흉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일을 헤버리면 선행을 할 수도 없게 되고, 과거의 악행을 보다는 봉사로 속죄할 수도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치 흰눈처럼 순결한 체하면서 주위 사람들 사이를 활보하는 것인데. 실은 마음속에는 좀처럼 지울 수 없는 죄악이 시커멓게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But, not to suggest more obvious reasons, it may be that they are kept silent by the very constitution of their nature. Or—can we not suppose it? Guilty as they may be, retaining, nevertheless, a zeal for God’s glory and man’s welfare, they shrink from displaying themselves black and filthy in the view of men; because, thenceforward, no good can be achieved by them; no evil of the past be redeemed by better service. So, to their own unutterable torment, they go about among their fellow creatures looking pure as new fallen snow; while their hearts are all speckled and spotted with iniquity of which they can not rid themselves.”(130)

또한 윌슨(Wilson)목사가 덤즈데일 목사에게 헤스터를 심문하라는 말을 했을 때 똑같이 죄를 저지른 덤즈데일 목사로서는 그 말이 자기의 죄를 숨긴 데 대한 고통을 더욱 상기시켜 주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덤즈데일 목사는 헤스터에게 죄의 상대를 고백하도록 한다. 이러한 일은 목사의 죄의식과 심적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이었다. 헤스터의 심적 고통이 클수록 덤즈데일의 죄의식 역시 심각하게 나타난다. 즉 헤스터는 그 죄가 세상에 알려졌으나 덤즈데일은 자기 죄를 숨긴 데서 죄의식이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의 죄는 이중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덤즈데일은 헤스터의 입장을 부러워하며 혼자서 7년이나 고민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만인 앞에 밝히지 못한데 대한 정신적 내면의 고통 외에도, 자신을 잔인하게 매질한다든지 단식과 밤샘 등으로 자신의 육체를 학대하기도 하면서 양심의 가책과 고뇌로 인하여 정신적 내면의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렇듯 자신의 이중의 죄에 대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그는 더욱 대 설교자로서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그로 하여금 더욱 견딜 수 없게 했다.

2) 덤즈데일과 칠링워스와의 관계

칠링워스는 아내의 간음상대가 모두에게 존경받는 목사임을 알고 난 후부터 복수를 성취할 것을 마음속에 맹세하고 덤즈데일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민다. 그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변신하여 목사의 주치의사의 자격으로 목사관에 입주하여 목사의 건강을 쾌유시킨다는 미명아래 환자인 덤즈데일과 밀착된 생활을 하게 된다. 끝까지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철저한 계획과 위장을 하여 끈질긴 복수의 집념으로 덤즈데일의 육신을 파멸시키고 동시에 영혼의 파멸을 획책한다. 이 소설에서 그의 역할은 목사 자신의 죄를 문책하는 엄격한 청교도적 정신의 역할과 유사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의 흉하게 변모하는 얼굴과 외모가 나타내듯이 그는 냉혹한 과학자적인 관심으로 목사의 내면의 갈등을 탐색하고 그 미묘한 움직임을 즐기는 비인간적인 상태로 전락해간다. 그는 덤즈데일의 마음속을 진찰하는 것처럼 정교하게 파헤쳐 그로 하여금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덤즈데일은 더욱 죄의식에 몸부림치며 고통 당하게 한다.

“나도 처음 보는 풀입니다. 비석도, 죽은 자에 대한 기록도 아무 것도 없는 무덤 위에 나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흉측한 잡초만이 죽은 자를 회상케 하는 느낌을 주더군요. 그 죽은 자의 심장에서 돋아난 것일 겁니다. 살아 있을 동안 고백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숨긴 채 묻혔기 때문에 그 비밀이 이런 형상으로 나타났나 봅니다.”

“They are new to me. I found them growing on a grave, which bore no tomb-stone, nor other memorial of the dead man, save these ugly weeds that have taken upon themselves to keep him in remembrance. They grew out of his heart, and typify, it may be, some hideous secret that was buried with his, and which he had done better to confess during his lifetime.”(96-97)

덤즈데일에 대한 칠링워스의 추적은 잔인할 정도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복수의 일념 하나로 목사의 숨은 비밀을 찾아내려는 칠링워스의 끊임 없는 노력은 지적교만과 비인간적 호기심으로 목사의 가슴을 파고 들어가 완전히 악마의 모습으로 변신한다.

“ . . . 차차 깊이 파고 들어감에 따라 조용해 보이면서도 격렬한 무서운 매력이 노인을 사로잡고 말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명하는 대로 움직일 때까지는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노인은 노다지를 찾는 탐광자처럼 이 불쌍한 목사의 가슴속을 파헤쳤다. 시체의 가슴에 달린 보석을 찾겠다고 파헤친 무덤에서 발견된 것이 다만 썩어 가는 주검뿐이었을 때의, 교회에서 일하는 인부의 모습과 흡사했는지도 모른다. 노인이 찾고 있던 것이 그와 같은 주검의 부패였다면 그 영혼이야말로 불쌍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 . . . as he proceeded, a terrible fascination, a kind of fierce, though still calm, necessity seized the old man within its gripe and never set him free again, until he had done all its bidding. He now dug into poor clergyman's heart like a miner searching for gold; or, rather, like a sexton delving into a grave, possibly in quest of a jewel that had been buried on the dead man's bosom, but likely to find nothing save mortality and corruption. also for his own soul, of these were that he sought!”(127)

칠링워스의 불타는 복수심은 정신적인 고통에서 급기야는 영혼의 파괴로 이르게 된다. 칠링워스가 주는 정신적 고통으로 허약해진 덤즈데일목사에게 자기가 손수 좋은 약제를 채취하여 건강을 회복시켜 주고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잔인하게 괴롭혔다. 결국 덤즈데일이 교수대에 올라가 만민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고 자할 때에도 그는 끝까지 덤즈데일을 회유하며 영원히 그를 옆에 두고 그의 영혼을 쪼먹으며 살려고 하는 그의 무서운 복수의 집념을 보인다. 덤즈데일은 이렇듯 영혼을 파고드는 칠링워스의 복수의 계략으로 고통받으며 그 자신의 자학적인 내성과 또한 그가 처한 상황, 그리고 칠링워스의 교묘한 괴롭힘 등이 서로 어울려 더욱 더 깊은 궁지에 몰아넣어 지는 것이다.

3) 딘즈데일과 퓨리턴 지역사회와의 관계

칼비니즘을 신용하는 청교도인들은 신을 무서워하고 양심의 순결을 중요시했다. 그리고 성서를 신의 법률이라 생각하고 모든 행동은 성서에 따랐다. 또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주장했다. 따라서 청교도들의 생활은 극도로 죄악을 두려워하고 쾌락을 물리치는 금욕적이고도 엄숙하고 정직한 생활이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애호하는 여러 가지 오락을 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금언한 생활을 실천했다. 그리고 매우 근면하고 극기심이 강했다. 그들은 목적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결코 저속하지 않고 매우 고상하고 고매한 데가 있었다. 그들의 정신은 강직하고 완고한 면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의 당시 사회적 구조가 그의 고뇌에 압박을 가하는 요인이 되었다. 청교도 사회에서 목사란 사회계층의 상층부에 속하면서 그 사회의 규칙이나 원칙 심지어는 편견 따위의 제약을 더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즈음의 목사들은 사회 조직의 지도계층에 속하였으므로 그는 그 사회의 규범이나 주의나 심지어는 편견에 의해 더 많은 제약을 받았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욱 그가 소속한 사회 질서를 벗어날 수 없었다.

At the head of the social system, as the clergymen of that day stood, he was only the more trammelled by its regulations, its principles, and even its prejudices. As a priest, the framework of his order inevitably hemmed him in.(363- 364)

브로드 헤드(Richard Brodhead)는 딘즈데일이 자신의 죄를 청교도 사회의 사람들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그가 청교도의 율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호손은 딘즈데일 자신의 허위 사실이 단지 그의 현실과 정체성이 되기 위하여 그의 죄가 그를 청교주의 범주에 보다 더 단단히 묶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Hawthorne notes that his sin has the effect of binding him more tightly to the categories of Puritan orthodoxy—so that the fact of his own untruth becomes his only reality and his only identity”
(브로드 헤드57)

딤즈데일이 빠져있는 도덕적 혼란은, 청교도들이 이상으로 삼는 *purity*(순수) 사이의 갈등에 의해 야기된 문제이다. 자신의 본능적 자아와 신의 순수(*purity*)를 지향하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도저히 결합시킬 수 없는 그의 궁지는 인간을 선택받은 인간들과 구제 받지 못한 인간들로 날카롭게 양분하는 청교도 사회의 속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듯 고통과 번민 속에서 발버둥치는 딤즈데일의 죄의식의 원인은 외형적으로는 이성간의 애정을 죄악시한 청교도사회의 엄격한 도덕률과 뉴잉글랜드 주민들의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 받는 목사에게 대한 사회의 견해가 그로 하여금 죄를 대중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concealed sin*(은닉의 죄)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2. 딤즈데일의 갈등과 구원

1) 딤즈데일의 갈등

딤즈데일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죄로서 헤스터와 불륜의 관계를 맺은 간음죄이며, 두 번째는 영적인 죄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한 채 숨기고 살아가야 하는 위선의 죄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호손은 딤즈데일의 간음죄 그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범죄 이후 자신의 범죄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목사 딤즈데일의 심리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터너(*Arlin Turner*)는 간음이라는 죄보다 그 죄를 숨기면서 생긴 이차적인 죄의식 때문에 딤즈데일의 죄의식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그의 양심은 죄의 고백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이를 숨김으로써 고통받고 점차 파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덤즈데일의 두 번째 죄인 간음죄의 은폐는 두 가지 죄 중에서 더 심각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자연력은 죄의 고백을 진정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를 파멸시키는 것은 이러한 죄이다.

Dimmesdale's secondary guilt, his concealment of his initial transgression, is for the greater of the two, for all the powers of nature call so earnestly for the confession of sin. It is this sin which destroys him.(터너 59)

헤스터의 드러난 죄에 비하면 덤즈데일의 죄는 숨겨진 죄이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자학과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의 정신적인 고통이 자신의 죄를 떼뻗이 고백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다음에 나오는 덤즈데일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다.

. . . 헤스터, 설령 그 사람의 높은 지위에서 내려와 그대 옆의 치욕적인 단상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도, 한 평생 죄지은 마음을 감추고 살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니까요. 그대가 침묵을 지킨다는 일이 그 사람을 위하여 무슨 소용이 되겠어요. 오직 그 사람을 유혹하여, 아니 굳이 말한다면, 무리하게 강요하여 죄지은 위에다 다시 위선을 거듭하게 할 뿐이지요. 하늘은 그대에게, 군중 앞에서 그 부끄러운 사실을 고백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으로 하여 그대가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이겨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용기가 없어서 스스로는 들지 못하는, 입에는 쓰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유익한 잔, 지금 그대 입술에 대고 있는 잔을, 그대는 그 사람에게 주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 . . *Hester, though he were to step down from a high place, and stand there beside thee, on thy pedestal of shame, yet better were it so, than to hide a guilty heart through life. What can thy silence do for him, except it tempt him—yea, compel him, as it were—to add hypocrisy to sin? Heaven hath granted thee an open ignominy, that thereby thou*

mayest work out an open triumph over the evil within thee, and the sorrow without. Take heed how thou deniest to him—who, perchance, hath not the courage to grasp it for himself—the bitter, but wholesome, cup that is now presented to thy lips!(150-151)

헤스터에게 있어 간음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덤즈데일에게 있어서도 간음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 했던 위선이 더 큰 죄였던 것이다. 리비트(*Charles Leavitt*)역시 헤스터가 그녀의 죄를 드러낸 데 반해 덤즈데일은 범죄를 숨김으로써 양심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양심은 그를 보고 위선자로 단언한다. 헤스터는 그녀의 죄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의 죄를 숨겨야만 함을 느끼고 그래서 내성으로부터 괴로워한다.

His conscience looks at him and declares him sinful hypocrite. Hester is able to externalize her sin. But he feels he must always hide his guilt, and so he suffers from introspection.(리비트 47)

또, 스티브스는(*John C. Stubbs*)는 덤즈데일의 간음의 상대자를 밝히려는 헤스터에 대한 권고는 덤즈데일 스스로 자신의 죄를 오히려 효과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침묵 또한 덤즈데일로 하여금 위선의 죄를 한가지 더 첨가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덤즈데일은 효과적으로 그의 실체를 밝히지 말라고 그녀에게 묻고 있다. 그러나 그는 계속되는 연설에서 그 스스로에게는 부정하는 말을 하고 있다. 헤스터의 침묵은 연인으로 하여금 단지 죄에 위선을 더하도록 유혹할 뿐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헤스터는 한 가지 행운이 있다. 하늘은 어린 펄(*Pearl*)과 함께 그녀의 죄를 주목했다. 그녀는 연인으로부터 동질적이고 유사한 구원을 알려야만 했다. 지금 그는 그녀의 물음의 가장 자리에 있는데 사실 너무 나약하여 그의 죄를 드러낼 수 없다.

Dimmesdale is effectively asking her not to reveal him. As he continues his speech, however, he contradicts himself. Hester's silence can only tempt her lover to add hypocrisy to sin he reasons. Ironically, Hester has been the fortunate one. Heaven has marked her guilt with the child Pearl. Ought she to withhold the similar relief of identification from her lover, he asks. Now he is on the verge of asking her, truly, to do what he is too weak to do—reveal his sin.(415)

헤스터가 딤즈데일을 위해 비밀을 고수하고자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간음이 드러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이 상황은 실제로 그에게 더욱 어려운 갈등과 고뇌를 야기 시키는 상황으로 발전되는 것으로 밝혀진다. 이제 그는 온전히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딤즈데일은 간음죄를 숨긴 채로 『주홍글씨』에서 그 어떤 주인공보다도 극심한 정신적 고뇌와 갈등을 경험한다. 불륜의 죄인이면서 동시에 추앙 받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의 고통은 더욱 무거워져 가는 것이며, 그의 위선은 한층 더 그에게 심적 타격을 준다. 그의 정신적인 아픔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깊어만 간다. 그러한 그의 정신적 고뇌의 일면은 다음에서 잘 드러난다.

그의 내적 고통은 그로 하여금 그가 태어나고 자라난 교회의 훌륭한 가르침보다도 옛날의 로마의 낡고 부패한 신앙과 일치되는 행위를 하도록 내몰았다. 딤즈데일의 엄중히 자물쇠를 채운 비밀의 벽장 속에는 피묻은 채찍이 있었다. 이 신교도이며 청교도인 목사는 이따금 그것으로 자신의 어깨를 매질하면서 쓰디쓴 웃음을 웃고, 그 쓰디쓴 웃음 때문에 한층 더 잔인하게 매질을 하였다. 당시의 믿음이 깊은 청교도들이 습관으로 하고 있던 것처럼 그도 단식을 습관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처럼 육체를 깨끗이 하고 하늘의 빛을 한층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매우 혹독하게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게 되기까지 하나의 고행으로써 이를 행하고 있었다.

His inward trouble drove him to practices more in accordance with the old, corrupted faith of Rome, than with the better light of the church in

which he had been born and bred. In Mr. Dimmesdale's secret closet, under lock and key, there was a bloody scourge. Oftentimes, this Protestant and Puritan divine had plied it on his own shoulders; laughing bitterly at himself the while, and smitting so much the more pitilessly because of that bitter laugh. It was his custom, too, as it has been that of many other pious Puritans, to fast—not, however, like them, in order to purify the body and render it the fitter medium of celestial illumination, but rigorously, and until his knees trembled beneath him, as an act of penance.(271)

위선의 가면을 벗기 위해서, 죄지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덤즈데일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 본다. 하지만 오히려 그는 스스로 자신이 점점 최악의 상황에 이른다는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 이와 같은 심리적인 압박감에 대해서 거버(*John C. Gerb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결국 덤즈데일은 극도의 고립에 처하게 된다. 언뜻 보기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지옥 같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앞으로 더욱 파탄되리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현재 그가 처한 고통이야말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에 달해 있었다.

Thus does Arthur Dimmesdale reach the extreme of his isolation. for the time being, seemingly, earth, hell his eventual fate would have been more terrible, but his immediate suffering could not have been greater.

(거버 530)

덤즈데일은 또한 괴로움에 못 이겨 7년 전 헤스터가 대중 앞에서 그녀의 수치를 드러냈던 처형대 위에 올라서 본다. 이는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의 마음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뿐 이였으며, 그는 고통 때문에 고향을 질러보기까지 한다.

그러기에 처형대에 서서 부질없는 속죄의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덤즈데일 목사는 우주 전체가 자신의 심장 바로 위의 주홍 색 표적에 집중되는 것 같은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사실 그의 심장에는 오래 전부터 독 이빨에 물어뜯기는 듯한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다. 억제할 힘도 없이, 또한 그런 의지의 노력도 없이 목사는 큰 소리로 고향을 쳤다.

And thus, while standing on the scaffold, in this vain show of expiration, Mr. Dimmesdale was overcome with a great horror of mind, as if the universe were gazing at a scarlet token on his made breast, right over his heart. On that spot, in very truth, there was, and there had long been, the gnawing and poisonous tooth of bodily pain. Without any effort of his will, or power to restrain himself, he shrieked aloud.(277-278)

덤즈데일이 밀실에서 자신의 몸에 고통을 가하거나 처형대로 올라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행동은 그의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나름대로의 속죄의 외적 표출형태로서, 그는 순간적이거나 이러한 형태의 참회로써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한 마음의 안식일 뿐 그가 참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둡침침한 밀실에서의 자학 행위가 그의 내적인 고통을 잠시동안은 순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자신을 결코 정화시킬 수는 없다고 포테(*Joel Porte*)는 주장한다.

자신의 방에서 혼자서, “꺼질 듯 말 듯한 램프”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속에 “완전한 어둠”이 깔린 곳에 앉아서, 그 속에서 덤즈데일은 “얼굴을 거울 속에 비춰보면서” 비밀스런 불면의 밤을 지킨다. 그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자가반성을 해낸다, 이 모든 것들을 그가 고통받았던 것일지라도 설령 자신을 새로이 정화시킬 수는 없었다.” 자신의 심장 속마음은 여전히 희미하고 불투명하기만 했다. 어떻게 하든 지간에 그가 자신의 내적 존재의 진실을 구체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려 한다면, 그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정화가 가능할 것이다. 결국, 호손에게 있어서 덤즈데일은 늘 상상으로만 그치고 마는 진실의 눈으로 자신의 은밀한 감정을 감추려고 애쓰는 일

종의 낭만주의자로 여겨진다.

Alone in his chamber, sitting in “utter darkness” of with light of a “glimmering lamp,” Dimmesdale keeps secret vigils in with, “viewing his own face in a looking-glass,” he “typified the constant introspection wherewith he tortured, but could not purify, himself.” His glimpses into his own heart are still vague and obscure. Purification will come only when he manages to bring to clarity that vision which will embody the truth of his inner being. Dimmesdale is thus seen by Hawthorne as a romancer struggling to transform furtive emotions into glimpses of imaginative truth.(포테 408)

한편 그의 고통은 목회 활동에서도 나타난다. 진실한 신앙과 높은 학식을 소유한 딘즈데일의 죄책감 속에서 행해지는 설교는 교구민들의 많은 동정심을 불러일으킨다. 그의 고뇌 속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는 모든 교구민들에게 강한 감동과 충분한 설득력을 갖게 한다. 고뇌에 찬 설교가 사람들의 존경을 배가시키고, 창백해지는 그의 모습이 성인의 금욕적인 삶의 증거로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그의 죄의식은 필연적으로 소외를 가져오게 된다. 자신에게 소중한 모든 것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만들어버린 그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신과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까지 단절감을 느끼게 된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렇게 검은 목사복을 입고 있는 나는, 신성한 교단에 올라가서 창백한 얼굴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여러분을 대신하여 가장 높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마음을 교류시킬 책임을 지고 있는 나는,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예녹의 성스러움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나는, 내가 이 땅 위를 걸으면 그 발자취가 빛나서 내 뒤를 따르는 순례자들이 그것에 의하여 축복의 나라로 인도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나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임종할 때 그들이 막 하직 한 세계로부터 희미하게 울려오는 아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작별의 기도를 올린 일도 있는 나는, 여러분의 목사이며 여러분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이 나는, 사실은 하위와 위선으로 가득 찬 타락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I, whom you behold in these black garments of the priesthood,—I, who ascend the sacred de나, and turn my pale face heavenward, taking upon myself 개 hold communion, in your behalf, with the Most High Omniscience,—I, in whose daily life you discern the sanctity of Enoch— I, whose footsteps, as you suppose, leave a gleam along my earthly track, whereby the pilgrims that shall come after me may be guided to the regions of the blest,—I, who have laid the hand of baptism upon your children,—who have breathed the parting player over your dying friends, to whom the Amen sounded faintly from world which they had quitted,—your pastor, whom you so reverence and trust, am utterly a pollution and a lie”(269)

이런 설교는 딘즈데일 자신의 죄에 대한 일종의 애매한 고백이다. 물론 딘즈데일은 그의 애매한 고백이 교구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교묘한 위선자로서 죄 지은 마음을 잘 속였다는 안도감은 조금도 얻지 못한 채, 또 다른 새로운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매번 확실하게 진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된 셈이다. 딘즈데일의 설교의 의도를 모르는 교구민들은 모든 것을 진실로 받아들인다. 포글(R. H. Fogle)은 혼자만의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설교가 결국에는 위선에 가득 찬 가장 큰 거짓으로 변할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에게 지식이란 곧 고통이다. 그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주민들이 그에게 보내는 존경심과 실제 그가 저지른 죄는 어울리지 않는 관계라 할 만하다. 날이 갈수록 그는 창백해지고 여위어 간다. 이 땅위에 살아가는 성인의 고행은 다 이러하다. 목사로서의 활동 정도는 그가 느끼는 절망과 비례한다. 자신의 설교를 통해 그는 진실을 고백하지만, 공식적인 말로 진실을 대부분 “완벽한 허위”로 변형하여 자신을 따르는 군중들로부터 존경심을 한층 더

배가시킬 뿐이다. 그는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완전히 제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각고의 노력은 자신의 처지의 곪을 더욱 깊게 파 놓는다.

His knowledge is as agony. His conviction of sin is in exact relationship to the reverence in which his parishioners hold him. He grows pale and meager—it is the asceticism of saint on earth; his effectiveness as a minister grows with his despair; he confesses the truth generality of his avowal and merely increases the adoration of his flock: every effort deepens his plight, since he will not—until the end—make the effort of complete self—revelation.(포클 556)

딤즈데일은 목사로서는 실패한 사람이다. 부끄러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아이러니를 범하고 있는 딤즈데일은 이제까지 쌓여 온 번민을 헤스터에게 말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한다.

. . . 가슴에 뿔뿔하게 주홍글씨를 달고있는 당신은, 헤스터, 행복한 거요! 나의 가슴은 남몰래 타오르고 있소. 7년 동안이나 거짓된 삶의 고통에 시달려온 끝에, 진정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위안을 주는 일인지 당신은 모를 것이요. 만일 친구가 하나있어—지독한 원수라도 상관없소—내가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 마음이 괴로울 때에, 매일 같이 그 사람에게 고백함으로써, 내가 모든 죄인 중에서 가장 악질이라는 것을 알아준다면 그것으로 내 영혼은 희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요. 그 정도의 진실만으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지금은 모두 거짓이요!—모두 공허하오!—모두가 죽음이요!”

Happy are you, Hester, that wear the scarlet letter openly upon your bosom! Mine burns in secret! Thou little knowest what a relief it is, after the torment of a seven years' cheat, to look into an eye that recognizes me for what I am! Had I one friend,—or were it my worst enemy!—to whom, when sickened with the praises of all other men, I

could daily betake myself, and be known as the vilest of all sinners, methinks my soul might keep itself alive thereby. Even thus much of truth would save me! But now, it is all falsehood!—all emptiness!—all death!(350-351)

그에게 있어서 매일의 삶을 위선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의 연속이었다. 교구민들의 존경에 비례하여 그의 내적인 삶의 고통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그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은 오직 만인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참회의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죄와 인간에 대한 배신 행위로 더욱 스스로의 심적인 고통을 자초해 간다. 범죄 이후 그는 병적이라 할만큼 세심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 당시 모든 청교도 목사들이 그랬듯이 그도 사회조직의 정점에 있었고 더구나 목사이기 때문에 그가 소속한 사회질서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덤즈데일은 죄를 지은 뒤 가혹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신경이 예민한 인간이었으므로 주위사람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도덕심이 강하게 보였다. 덤즈데일은 자신이 죄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를 하지 않았기에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는 비록 속죄하는 의미로 처형대 위에 올라 가 보기도 했지만 마음의 위안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가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는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다. 그것은 다음의 헤스터와의 대화로 잘 알 수 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요! 차디차게 죽은 것이어서 나에겐 아무런 쓸모도 없는 거요! 그 동안 고행은 많이 해왔지만, 회개는 한 번도 한 일이 없소! 만일 그랬다면 이런 위선적인 목사복을 벌써 오래 전에 벗어 던지고 최후 심판의 날에 있을 그대로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드러냈을 것이요.”...

“There is no substance in it! it is cold and dead, and can do nothing

for me! Of penance, I have had enough! Of penitence, there has been none! Else, I should long ago have thrown off these garments of mock holiness, and have shown myself to mankind as they will see me at the judgment-seat.” . . .(350)

마음의 정화란 마음의 진실을 구체화 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런 끊임없는 내적 고뇌가 덤즈데일의 특징이 되어 그의 심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기는 했지만 진실로 그의 마음속 깊은 것을 정화할 수는 없다고 레빈(*David Levin*)은 주장한다.

그가 받은 최고의 형벌이란 그의 주위를 둘러싼 모든 진실들이 비현실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이다. 자신의 참회는 거짓이고 더 이상 만물의 원리를 좇아 사고할 수 없으며, 해석과 다른 현상들을 보고 신이 그에게 직접 보낸 메시지라고 여겼다.

His worst punishment is that all other reality becomes unreal. knowing that his penitence is false but unable to think ling universe, interesting a comet and other phenomena as messages sent directly from God to himself.(레빈 493)

호손은 다시 한번 칠링워스의 입을 통해 덤즈데일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덤즈데일의 그러한 행위가 양심의 가책 뒤에 있는 겁 때문이며 도망칠 수도 숨길수도 없는 치욕에 정면으로 맞서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저 칠링워스의 말은 어느 때와 달리 힘차게 들렸다. 그는 집게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이며 말을 계속했다.“그런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치욕을 마주 대하는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열성이라든가 그런 깨끗한 충동과, 한번 범한 죄가 문을 열고 불러들인 나쁜 종자를 번식시키

는 사악한 충동이 그자들의 마음속에 공존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더러운 손을 천국 쪽으로 쳐들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이 동포에게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선 겸손한 태도로 죄를 회개함으로써, 양심의 힘과 존재를 명백하게 하는 일부터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참으로 현명하고 경건한 당신이지만, 설마 기만과 허위가 하나님의 진리보다도 더 훌륭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인간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나에게 믿게 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 자들은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These men deceive themselves,” said Roger Chillingworth, with somewhat more emphasis than usual, and making a slight gesture with his forefinger. “They fear to take up the shame that rightfully belongs to them. Their love for man, their zeal for God’s service,—these holy impulses may or may not coexist in their hearts with the evil inmates to which their guilt has unbarred the door, and which must needs propagate a hellish breed within them. But, if they seek to glorify God, let them not lift heavenward their unclean hands! If they would serve their fellowmen, let them do it by making manifest the power and reality of conscience, in constraining them to penitential self—abasement! Wouldst thou have me to believe, O wise and pious friend, that a false show can be better—can be more for God’s glory, or man’s welfare—than God’s own truth? Trust me, such men deceive themselves!” (251-252)

그렇다면 덤즈데일이 이처럼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온갖 명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덤즈데일의 욕심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서 목사직이란 단순히 사회적인 직업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목사직 포기란 곧 그의 자아의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다. 청교도 사회에서 목사라는 직업은 우선 그 당시의 사람들

의 숭배에 가까운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야심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직업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이에 대한 흥미의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군다나 성공한 목사는 정치적인 권력까지도 아울러 잡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뒷받침한다 할 수 있겠다.

. . . 그 당시는 정치가라는 직업보다도 목사라는 직업이 훨씬 더 지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성직에 대한 고매한 동기는 접어두더라도 사회에서 숭배에 가까운 존경을 받는 직업이었던 만큼 격렬한 야심을 품은 사람도 이 목사라는 직업에 강한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치력까지도 인크리스메이더(미국청교도의 목사이자 정치가)의 경우처럼 훌륭하게 목사의 수중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 . . *His was the profession, at that era, in which intellectual ability displayed itself far more than in political life; for—leaving a higher motive out of the question—it offered inducements powerful enough, in the almost worshipping respect of the community, to win the most aspiring ambition into its service, Even political power—as in the case of Increase Mather—was within the grasp of a successful priest.(425)*

딤즈데일 역시 이러한 명예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것은 헤스터가 함께 뉴잉글랜드를 떠나자는 제안을 했을 때, 그는 떠나기로 한 날짜가 나흘 후인 것을 알고 사흘 후에 예정되어있는 선거축하 설교를 할 수 있게 됨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왜냐하면 선거 축하 설교를 한다는 것은 뉴잉글랜드의 목사라면 누구나 평생의 영광이라 생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딤즈데일로서도 이러한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목사는 적잖은 관심을 가지고 배가 출항하는 날짜를 헤스터에게 물었다. 나흘 뒷면 떠날 것이라는 대답을 듣고 나흘 뒷면 떠날 것이라는 대답을 듣고 목사는 잘되었군!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딤즈데일 목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한 이유는 밝히기를 꺼려하는 바다. 그러나—독자에게 무엇하나 숨기지

않기 위하여 말한다면—사흘 뒤에 목사는 총독 취임식에 축하 설교를 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기회는 뉴잉글랜드 목사로서는 평생의 명예라고 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성직을 떠나려는 이 마당에 이보다 더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만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

The minister had inquired of Hester, with no little interest, the precise time at which the vessel might be expected to depart. It would probably be on the fourth day from the present. "That is most fortunate!" he had then said to himself. Now, why the Reverend Mr. Dimmesdale, considered it so very fortunate, we hesitate to reveal. Nevertheless,—to hold nothing he was to preach the Election Sermon; and as such an occasion formed an honorable epoch in the life of a New England clergyman, he could not have chanced upon a more suitable mode and time of terminating his professional career.(386)

여기서 딘즈데일이 다행히 여기는 이유는 사회에 대한 책임이라기 보다는 결국 자신이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교회 일을 더하고 싶은 그의 욕심 때문이다. 비록 그는 죄를 지은 몸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행복을 열심히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신의 추악하고 흉한 모습을 드러내기를 주저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한다. 딘즈데일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대중 앞에 고백함으로써 받아야하는 치욕과 불명예보다는 차라리 고백하지 않고 더욱 선한 일을 하여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신적, 육체적으로 약해져만 간다.

“나와 같은 자가, 나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무엇을 구하건 간에 얻을 수 있겠소? 내가 무신론자였거나 양심이 없는 인간이었거나 거칠고 동물적인 본능으로 살아가는 야비한 인간이었다면 이미 오래 전에 나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을 것이오 아니 조금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았을 것이오. 그런데 지금 내 영혼이 상태가 이러하니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좋

은 소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고마우신 선물도 모두 내 영혼에게 가책을 가하는 것이 되고 말았소. 헤스터, 나보다도 더 비참한 사람은 없을 거요.”

“What else could I look for, being what I am. and leading such a life as mine? Were I atheist—a man devoid of conscience,—a wretch with coarse and brutal instincts,—I might have found peace, long ere now. May I never should have lost it! But, as matters stand with my soul, whatever of good capacity there originally was in me, all of God’s gift that were the choicest have become the ministers of spiritual torment. Hester, I am most miserable.”(348-349)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호손은 딘즈데일을 자신이 자초한 소외와 고립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목사로서의 사명을 고수하게 함으로써 청교도들의 주장과는 다른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다. 호손은 우리들 모두가 죄인임을 강조함은 물론, 딘즈데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도피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합을 추구하는 자로 그리고 있다. 헤스터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제시했을 때 딘즈데일은 자신의 영혼은 순결을 잃었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목사의 사명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굳은 의지를 표명한다.

“그런 짓은 할 수 없소!” 마치 꿈을 실현시키라는 말이라도 들은 듯 어이없는 표정이었다. “나는 갈 힘이 없소. 죄를 지어 비참한 몸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곳에서 이생의 삶을 마칠 생각밖에 아마 생각도 없소.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내 영혼이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하고 싶소! 나는 영혼의 파수꾼으로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이 어려운 영혼의 파수꾼 역할이 끝날 때면 죽음과 불명예가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것은 각오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여 내 직분을 그만 두지는 않겠소”

“It cannot be!” answered the minister, listening as if he were called

upon to realize a dream. "I am powerless to go! Wretched and sinful as I am, I have had no other thought than to drag on my earthly existence in the sphere where Providence hath placed me. Lost as my own soul is, I would still do what I may for other human souls! I dare not quit my post, though an unfaithful sentinel, whose sure reward is death and dishonor, when his dreary watch shall come to an end."(359-360)

2) 덤즈데일의 구원

그렇다면 덤즈데일로 하여금 고백을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덤즈데일 자신의 죄의 산물인 펄(Pearl)을 들 수 있다. 펄은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목사에게 만날 때마다 죄의 고백을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덤즈데일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어두운 밤에 헤스터와 펄의 손을 잡고 처형대 위에 서자 펄은 그에게 다음날 밝은 대낮에 처형대 위에서 함께 서 달라고 요구한다.

“내일 낮에 엄마하고 나하고 함께 여기 서 주시겠어요?” 펄이 말했다. “그건 안돼, 펄.” 순간 새로운 기력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줄곧 고민거리였던, 대중 앞에 폭로된다는 공포심이 새삼 그를 엄습했다. 지금 이렇게 셋이 함께 하게 된 것에 한편으론 기묘한 기쁨을 맛보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웠다. “그런 안돼. 내일은 안되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엄마와 너와 같이 이곳에 서주마!” “그럼, 내일 낮에 내 손하고 엄마 손을 잡아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어요?”하고 펄은 다시 물었다. “내일 낮엔 안돼, 펄! 다른 날 꼭 잡아줄게!” “다른 날이라니, 그게 언제야?” 아이는 끈질기게 물었다.

"Wilt thou stand here with mother and me, tomorrow noontide?" inquired Pearl. "nay: not so, my little Pearl," answered the minister: for with the new energy of the moment, all the dread of public exposure, that had so long been the anguish of his life, had returned upon him; and he was already trembling at the conjunction in which—with a

strange joy, nevertheless—he now found himself. “Not so, my child. I shall, indeed, stand with thy mother and thee, one other day, but not tomorrow.” “But wilt thou promise” asked Pearl, “to take my hand and mother’s hand, tomorrow noontide?” “Not then, Pearl,” said the minister, “but another time.” “And what other time?” persisted the child.(285)

딤즈데일로 하여금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펄의 존재는 곧 그의 본능적 자아의 존재함을 그의 눈앞에 증거하고 있다. 딤즈데일에게 있어 펄의 존재는 그와 헤스터를 묶어주는 끈으로서 헤스터와 마찬가지로 그에게 있어서도 내면에 양심을 일깨워 죄의 고백을 요구하는 소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둘째, 교묘하게 철저한 계획 속에서 딤즈데일을 과멸로 몰아넣으려는 칠링워스의 복수를 들 수 있다. 그 자시의 자학적인 내성과 그가 처한 상황, 그리고 칠링워스의 교묘한 괴롭힘 등이 서로 얽혀 그를 더욱더 궁지에 몰아넣는다. 헤스터와 간음한 상대자가 청교도 사회에서 명성 높은 목사인 딤즈데일임을 안 그는 딤즈데일을 더욱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 결국에는 죄에 대해 고백을 하게 유도하였다. 이것은 딤즈데일의 고백의 말에서 알 수 있다.

나의 가슴에 이 타 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주신 것도 그러하오! 여기 있는 음흉하고 무서운 노인을 시켜 그 고통을 언제나 빨갱게 타오르게 하신 것도 그러하오! 나를 이곳에 오게 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리와 치욕을 짊어지고 죽게 하신 것도 그러하오. 이런 고통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했다면 나는 영원히 과멸해 버렸을 것이오!

By giving me this burning torture to bear upon my breast! By sending yonder dark and terrible old man, to keep the torture always at red—heat! By bringing me hither, to die this death of triumphant ignominy before the people! Had either of these agonies been wanting, I had been lost forever!(451-452)

셋째, 고통스런 삶을 살면서도 언제나 변함없는 헤스터의 사랑을 들 수 있다. 칠링워스로 인해 딘즈데일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안 그녀는 숲 속에서 딘즈데일을 만나 칠링워스의 정체를 밝혀주고 뉴잉글랜드를 떠나 칠링워스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이때 딘즈데일은 헤스터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삶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

목사는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큰소리로 외쳤다. “다시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다니! 기쁨의 싹은 모두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오, 헤스터, 당신은 나의 천사요! 나는 병들고, 죄에 더럽혀지고, 슬픔에 잠긴 이 몸을 숲 속의 낙엽 위에 내던졌는데, 새 사람이 되어 자비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새로운 힘이 가득 차 일어선 듯한 기분이오! 이것만으로도 벌써 행복한 생활이오! 왜 이런 것을 좀더 일찍 발견하지 못했을까?”

“Do I feel joy again?” cried he, wondering at himself, “Methought the germ of it was dead in me!” “O Hester, thou art my better angel! I seem to have flung myself—sick, sin stained, and sorrow—blackened—down upon these forest—leaves, and to have risen up all made anew, and with new powers to glorify Him that hath been merciful! This is already the better life! Why did we not find it sooner?”(366-367)

이제 헤스터로부터 칠링워스의 정체를 알게 된 딘즈데일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 자신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던 간음의 죄와 그것을 숨김으로써 생긴 위선의 죄는 인간의 고유한 심성의 성역을 침입한 칠링워스의 죄에 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이젠 기꺼이 당신을 용서하겠소.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어야 하오! 헤스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인은 아니오 타락한 목사보다도 더 쾌ష한 사람이 하나 있으니 말이오! 그 늙은이의 복수는 나의 죄보다도 더 흉측하오, 그 사람은 잔인 무도하게 인간 마음의 신성함을 짓

맑은 것이오. 그러나 당신과 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소, 헤스터!”

“I freely forgive you now. May God forgive us both! We are not, Hester, the worst sinners in the world. There is one worse than even the polluted priest! That old man’s revenge has been blacker than my sin. he has violated, in cold blood, the sanctity of a human heart. Thou and I, Hester, never did so!”(355)

넷째, 딘즈데일에 대한 일반사람들의 존경심을 들 수 있다. 딘즈데일이 설교 시간에 너무도 괴로워 자신의 죄 많은 내면의 상태에 대해 언급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감동을 받는다.

. . . 자기는 정말 비열한 사람일뿐더러 가장 비열한 사람 중에서도 더 비열한 작가이고, 극악인, 혐오의 존재, 상상할 수도 없는 악의 화신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불같은 노여움으로 그의 더러운 육체가 그들 앞에서 불타 버리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보다 명백한 말이 또 있을까? . . . 목사의 자책하는 말속에 얼마나 무서운 뜻이 내포되어있는지 그들은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이기도 젊은데, 하나님 같은 분이시다!” 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지상의 성자이시다! 목사님은 자신의 순결한 영혼 속에서도 그런 죄악을 인정하는데 더구나 우리의 영혼 속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죄악을 발견 하실까!”

. . . *He had told his hearers that he was altogether vile, a viler companion of the worst of sinners, an abomination, an thing of unimaginable iniquity; and that the only wonder was that they did not see his wretched body shrivelled up before their eyes, by the burning wrath of the Almighty! Could there be plainer speech than this? . . . They little guessed what deadly purport lurked in those self—condemning words. “The godly youth” said they among themselves. “The saint on earth! Alas, if he discern such sinfulness in his own white soul, what horrid spectacle would he behold in thine or mine!”*

고뇌에 찬 이러한 설교가 사람들이 존경을 배가시키고 창백해지는 그의 모습에 성인의 금욕적인 삼의 증거로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그의 죄의식은 더욱 커져만 간다. 그는 설교시간에 자신은 가장비열한 사람이며 최악의 죄인이고 불의한 사람이라 고백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자책의 말속에 얼마나 무서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는 조금도 추측하지 못한 채 그를 더욱 존경할 뿐이다. 딘즈데일은 끝없이 고백하고픈 충동과 고백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사이에서 방황한다. 어느 하나도 약하지 않은 힘이다. 고백하지 못하는 고뇌에서 나온 설교가 사람들을 더 감동시켜 그를 더 성인처럼 숭배하게 됨으로써, 그는 더욱더 고백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는 자신의 죄를 대중앞에 고백하려 했지만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자신이 위선의 죄를 범하게 된 셈이었고 사람들의 그에 대한 존경심은 그로 하여금 자신이 위선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들게 함으로써 그를 더욱 고통받게 하여 고통 속에서 더욱 죄를 고백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이 죄를 너무 잘 인식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죄와 고뇌의 무거운 짐에 의해 그의 설교는 비통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언제나 청중을 감동시켰다. 사람들에게는 그가 걸어 다니는 땅까지 신성해 보였고 신자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죽거든 저 젊은 목사의 신성한 무덤 옆에 묻어 달라고 유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 사람들의 눈에는 목사가 밟는 땅조차도 신성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교회 처녀들은 그의 여에 서면 안색이 창백해졌는데 종교적 감정이 제대로 스며든 정열의 희생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정열 그 자체를 모두 종교라고 생각하고 제단에 바칠 가장 훌륭한 제물로써 그 정열을 당당하게 가슴에 품고 교회로 나왔다. 나이 많은 신자들은 딘즈데일 목사의 허약한 몸을 보면 자신들은 노쇠해서 주름살 투성이 입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천국에 가리라 믿었는지, 죽거든 뼈를 저 젊은 목사의 신성한 무덤 가까이 묻어 달라고 자손들에게 유언했다.

. . . In their eyes, the very ground on which he trod was sanctified. The virgins of his church grew pale around him, victims of a passion so imbued with religious sentiment that they imagined it to be all religion, sacrifice before the altar. The aged members of his flock, beholding Mr. Dimmesdale's frame so feeble, while they were themselves so rugged in their infirmity, believed that he would go heavenward before them, and enjoined it upon their children, that their old bones should be buried close to their young pastor's holy grave.(268)

그에 대한 이러한 대중의 존경이 그를 더욱 괴롭혔고 대중이 존경이 높을수록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못한 것이 그의 고뇌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크루주(Frederic Crews)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딘즈데일의 병의 원인을 7년 동안의 그의 심리 상태를 밝힘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그의 자학의 바닥에 깔려 있는 간음죄의 은폐 행위이다.

"We can understand the nature of Dimmesdale's illness by defining the state of mind that has possessed him for seven years. It is of course his concealed act of adultery that lies at bottom of his self-torment"(크루주 141)

딘즈데일의 죄로 인한 고통과 겉으로는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위선적인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파멸되어가면서도 신성한 성직자의 직무에 있어서는 역설적으로 더 큰 존경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선이 갖는 죄의 고통은 존경심을 크게 받을수록 더욱 커지게 된다. 딘즈데일이 7년 후 숲 속에서 헤스터를 만났을 때 그는 사람들이 당신들 존경하고 당신은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마음의 위안이 안 되느

나는 그녀의 질문에 오히려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솔직히 드러내고 있다.

“더욱 비참하고, 헤스터! 그 때문에 더 비참해질 뿐이오!” 복사는 쓰디쓰게 웃었다. “내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 속에는 아무런 신념이 없소 그런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오. 나처럼 타락한 영혼이 다른 사람이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소? 더럽혀진 영혼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있단 말이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지만 차라리 경멸과 증오를 퍼부어 주었으면 좋겠소. 내가 설교단위에 서면 마치 내 얼굴에서 천국의 빛이라도 비쳐 나오는 것처럼 올려다보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아야만 하오! 그것이 대체 무슨 위안이오? 또 교인들이 진리를 갈망하여 마치 오순절의 하나님 말씀이나 되는 것처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하오! 그러나 사람들이 그토록 신망하고 있는 나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정작 검은 실체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소. 표면적인 나와 내면적인 내가 전혀 판관인 나 자신의 모습에 난 차라리 웃음이 났소! 그것을 본 악마도 비웃고 있다오!” . . . “헤스터,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오, 가슴에 뚝뚝하게 주홍글씨를 달고 있으니 말이오! 나의 주홍글씨는 남모르게 불타고 있소!”

“More misery, Hester!—only the more misery!” answered the clergyman, with a bitter smile. “As concerns the good which I may appear to do, I have no faith in it. It must needs be a delusion, What can a ruined soul, like mine, effect towards the redemption of other souls?—or a polluted soul towards their purification? And as for the people’s reverence, would that it were turned to scorn and hatred! Canstthou deem it, Hester, a consolation, that I must stand up in my pulpit, and meet so many eyes turned upward to my face, as if the light of heaven were beaming from it!—must see my flock hungry for the truth, and listening to my words as if a tongue of Pentecost were speaking!—and then look inward, and discern the black reality of what they idolize? I have laughed, in bitterness and agony of heart, at the contrast between what I seem and what I am! And Satan laughs at it!” . . . “Happy are

you, Hester, that wear the scarlet letter openly upon your bosom! Mine burns in secret!"(349-350)

결국 서서히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덤즈데일은 만인이 보는 앞에서 처형대에 섬으로써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한 결심을 하게 된다. 오랫동안의 그의 고통은 끝이 났다. 그는 마치 신의 영감을 받은 듯이 감동적인 언어로 축하 설교를 작성한다. 구원의 전기를 마련하는 그의 순간적인 고뇌의 모습을 메일(Roy R. Male)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기나긴 단식은 끝이 났다. 저녁을 거들면서, 그는 마치 성령으로 영감을 얻은 것처럼 열정적으로 소명설교를 작성한다. 이는 그의 새로운 모습이다; 즉, 진실성의 여명인 동시에 학문적 연구에 있어서도 일종의 황금빛 태양광선처럼 보였는데, 마치 손가락 사이에 여전히 들려있는 연필과 함께 앞으로 이로써 쓰여질 광대하고 무한한 공간의 자취를 뒤로하고 있는 듯했다.

The long fast is over. Partaking of supper, he composes, as if divinely inspired, the flaming Rhetoric of the Election Sermon. This is his new field; this is his true dawn; and as the golden sunrise beams in his study, he is seen with the pen still between his fingers and a vast immeasurable tract of written space behind him.(메일 355)

덤즈데일은 그의 내면에서 오는 양심의 소리, 공포, 도덕적 고립 등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육신이 쇠약해졌지만 이런 고립의 세계에서 고백이라는 방법을 통해 스스로 구원의 탈출구를 찾는다. 이같이 헤스터와 유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진실의 세계를 바라 볼 수 있게 된다고 레빈(David Levin)은 주장한다.

숨겨진 죄인 덤즈데일 역시 심리학적인 면에서 연구해봄직한 대상이다. 그의 은밀하고도 일부분 적인 회개는 더 큰 형벌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에게 벌을 가함에 있어서, 대중들에게는 은혜를 행사하지만 그건 곧 애매 모호한 고백에 지나지 않는 감탄할 정도의 교활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근본, 그러니까 헤스터와 그들 사이의 아이에 대한 인간적 연관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것은 곧 최 하류층의 인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설교를 가능하게 할뿐이다. 그러나 대중 앞에서 성공적인 연설자가 되어 그들로부터의 존경심이 깊어 갈수록, 대중 앞에서 성공적인 연설자가 되어 그들로부터의 존경심이 깊어 갈수록, 대중 앞에서의 자신이 행동이란 그의 정직 혹은 진실이라는 근본적인 윤리에 위배된다는 고통스러운 깨달음도 더욱 배가된다.

Dimmesdale, the secret sinner, is also a remarkable study in psychology. His private, partial penitence only becomes a greater punishment. for he shows remarkable cunning in punishing himself by vague hints of confession that work to his public benefit, Throughout the book he denies his natural, human connection with Hester and their child. his awareness of his own guilt keeps his preaching at a level that the most lowly can understand; but the more revered he becomes in his public success, the more painfully he realizes that his every public action violates his cardinal principle of honesty, or truth.(레빈 493)

딤즈테일은 자신의 몸을 헤스터에게 의지한 채 한 손은 펄의 손을 잡고 처형대위에 올라서서 마지막 온힘을 다해 뉴잉글랜드의 주민들에게 7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뉴잉글랜드의 주민 여러분!” 목사는 큰 소리로 외쳤다 . . .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큰 죄인이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겨우! 이제야 겨우! 7년 전에 이 여인과 함께 섰어야 할 이 자리에 섰습니다 . . . 헤스터가 달고 있는 주홍 글씨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 나가 다 이것을 보고 몸을 떨었습니다! . . . 그러나 여러분은 또 한 사람의 죄악과 치욕의 낙인에는 몸을 떠는 일이 없었습니다!“ . . . 그러나 그는 교묘하게도 사람들 눈을 속이고

죄 많은 속에서 자기만 순결하여 슬프다는 듯이, 여러분들 사이를 걸어다녔던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남자는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헤스터의 주홍글씨를 봐 주십시오! 이 불가사의하고 무서운 주홍글씨도 그 남자의 가슴에 찍혀 있는 표적에 비하면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며, 그 남자 자신의 빨간 낙인도 그의 깊은 가슴속이 타고 있는 상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 . . 보십시오! 그 심판의 무서운 증거를 보십시오!”

“People of New England!” cried he . . . behold me here, the one sinner of the world! At last!—at last!—I stand upon the spot where, seven years since, I should have stood: . . . Lo, the scarlet letter which Hester wears! Ye have all shuddered at it! . . . But there stood one in the midst of you, at whose brand of sin and infamy ye have not shuddered“ . . . But he hid it cunningly from men, and walked among you with the mien of a spirit, mournful because so pure in a sinful world!—and sad, because he missed his heavenly kindred! Now, at the death-hour, he stands up before you! He bids you look again at Hester’s scarlet letter! He tells you, that, with all its mysterious horror, it is but the shadow of what he bears on his own breast, and that even this, his own red stigma, is no more than the type of what has seared his inmost heart! . . . Behold! Behold a dreadful witness of it!”(448-449)

이 고백은 결국 속과 겉이 다른 삶을 살아온 자신의 고뇌를 드러내는 것이며, 동시에 거짓이 되었던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인 것이다. 자기자신과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자신의 신과도 은혜로운 관계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그의 행동은 단순히 보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직접 보임으로써 사람들에게 영향 주게 되는 것에 의의를 지닌다. 덤즈데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숨겨진 죄를 고백하는 행위는 인간의 나약성을 떨쳐버리고 진실을 밝히고 무거운 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짐을 나타내는 사건이다. 이 비참하고 치욕스럽지만 감격스러운 장면을 호손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며 마무리한다.

펼은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들을 묶었던 마법은 풀렸다 이 비극적인 장면에서는 이 야성적인 어린애마저도 동정심이 우러났다. 상징이 역할만을 맡았던 펼이 깊은 슬픔의 눈물을 보임으로써 ‘세상 안의 여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간화 된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눈물이 아버지이 불에 떨어졌을 때 그 눈물은 그녀가 장차 인간적인 기쁨과 슬픔 속에서 성장하여 이제 영원히 세상을 상대로 싸우지 않고 온전한 한 사람의 여인이 된다는 서약이었다. 어머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의 분노의 사자로서 그녀를 괴롭혀 온 역할을 끝내 버렸다.

Pearl kissed his lips. A spell was broken. The great scene of grief, in which the wild infant bore a part, had developed all her sympathies; and as her tears fell upon her father's cheek, they were the pledge that she would grow up amid human joy and sorrow, nor forever do battle with the world, but be woman in it. Towards her mother, too, Pearl's errand as a messenger of anguish was all fulfilled.(450-451)

이를 목격한 관중들은 어떤 굉장한 삶의 미스테리에 접한 듯 감동을 받는다. 그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경멸하기는커녕 그의 고뇌의 크기를 이해하는 듯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음은 그 자체가 발전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덤즈데일의 구원문제를 생각해 볼 때 과연 호손은 청교도들이 주장하는 칼빈주의의 예정론 그 자체를 비판하려 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아 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그분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분은 무엇보다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분의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내 가슴에 이 불타는 고뇌를 주심으로써 그러하셨습니다! 저 음흉하고 무서운 노인을 보내셔서 항상 그 고뇌가 빨갱게 불타오르게 하였습니다! 이곳으로 나를 보내셔서 사람들 앞에서 치욕스러우나 승리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고통 중 하나라도 없었더라면 나는 영원

히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찬양 받을지어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God know: and He is merciful! He hath proved his mercy, most of all, in my afflictions. By giving me this burning torture to bear upon my breast! By sending yonder dark and terrible old man, to keep the torture always at red-heat! by bringing me hither, to die this death of triumphant ignominy before the people! had either of these agonies been wanting, I had been lost forever! Praised be His name! His will be done! Farewell!”(557)

딤즈데일의 이 마지막 대화에서 그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한다. 범죄로 인해 심한 내적 갈등을 겪은 것도, 칠링워스를 통해 고통받은 것도, 그리고 지금 만인 앞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고백을 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기에 가능한 것이라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구원을 확신한채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찬미한 후 숨을 거둔다.

『주홍글씨』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딤즈데일의 이 최후의 고백을 스티브스(Stubbs John C)는 딤즈데일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마지막 수치스런 방면은 딤즈데일의 승리의 순간이다 . . . 예배당 밖에서 이어지는 그의 고백은 설교의 극적인 재연이다. 딤즈데일은 그의 죄를 고백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 그의 행위는 그의 주위에 있는 다른 죄있는 영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이다. 그의 최후의 순간은 지도자다운 것이다.

Seen from this perspective, the final pillory scene is a moment of triumph for Dimmesdale . . . The confession that follows outside

the meeting house is a dramatic reenactment of the sermon. Dimmesdale confesses his sin and throws himself repentant before God with hope. His act is a message to the other sin-tainted mortals around him. His final moment is one of leadership.(스텝스 391-392)

Ⅲ. 결 론

『주홍글씨』는 17세기 뉴잉글랜드 사회 속에서 청교도인들이 지냈던 도덕적·종교적 생활감과 죄의식에 관하여 호손이 갖고있던 관심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호손이 청교주의의 사상과 정서가 뿌리깊은 뉴잉글랜드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의 작품을 논할 때 청교주의를 따로 분리시켜 생각할 수는 없다. 당시의 청교주의는 정부와 경제적 환경, 그리고 개인적 행동에 있어서 안정을 제공하는 종교적 신념이었다. 영국으로부터 탄압을 피하여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인들은 혹심한 자연 환경 속에서 절대적인 신권통치와 인간의 선천적인 타락을 강조하는 교리를 그 기본으로 삼았다. 그들은 완벽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위하여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 철저히 교육했으며 고도의 절제된 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들 자신도 원죄의 속성을 가진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벽하게 실천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 자체도 모순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호손은 정통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왜곡되어 변질된 당시 청교도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많은 신앙적인 갈등을 겪어야 했다. 따라서 엄격하고 억압된 청교도의 삶을 너무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청교주의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는 청교도주의가 신봉하는 칼빈주의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율법에만 치중하여 사랑과 용서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당시 시대적 분위기는 그의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현실이 그로 하여금 독특한 자신만의 신앙관을 가지게 하였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문제, 특히 죄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의 작품들은 자연스럽게 주된 관심사였던 인간 본연의 문제들을 소재로 삼고있으며 그 속에서 호손은 인간의 죄에 대해 그리고 당시 사회를 비판하고자 하였다.

『주홍글씨』는 사랑과 용서가 결여되고, 오직 법에 의한 하나님만을 내세우는 청교도 사회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호손은 덤즈데일 목사의 죄와 구

원의 문제를 소재로 하여 당시 청교도 사회의 왜곡된 신앙과 그들의 생활 모습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주홍글씨』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딘즈데일은 사회에서 존경과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성직자이다. 그러한 그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간음죄를 범하게 되고 범죄 이후 수많은 갈등과 고통 속에서 죄를 고백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위선의 죄까지 범하게 된다. 내적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외적으로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딘즈데일을 통해 그런 청교도 사회의 모순을 비판했다. 딘즈데일은 그의 죄를 감추었기 때문에 더욱 괴로워한다. 죄책감과 영적 지도자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딘즈데일은 7년 동안 죄를 고백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파멸되어 간다. 딘즈데일은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심한 정신적 갈등과 번민, 그리고 죄의식의 고통 속에서 점진적인 육신의 파멸을 초래하게 되는 죄의식의 살아있는 화신이라 하겠다. 이렇듯 고통과 번민 속에서 발버둥치는 딘즈데일의 죄의식의 원인은 외형적으로는 이성간의 애정을 죄악시하는 청교도 사회의 엄격한 도덕률과 뉴잉글랜드 주민들의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받는 목사에 대한 사회의 견해가 차마 죄를 밝힐 수 없게 했으며 심리적으로는 우유부단하고 용기가 없으며 위선적인 자신의 성격으로 인하여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아울러 앞서 지적한 대로 인간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욕심에 있어서도 그는 자유롭지 못했다.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이 대외적인 삶 속에 나타나는 일반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 정치적 권력 등에 만족하며 살고자 원했던 인간 본성의 악한 모습도 그의 고백을 망설이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겠다. 이러한 면들을 통해서 호손은 너무 율법에 얽매인 나머지 사랑 없는 사회가 되어 버린 당시 청교도 사회와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도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함께 죄를 범한 헤스터에게 청교도사회가 내리는 가혹한 처벌에 딘즈데일의 죄의식은 가중되었고, 또한 영혼을 파고드는 칠링워스의 복수의 계략으로 고통을 받으며, 필의 행동은 더욱 자신이 죄의식을 느끼게 해주는 원인이 되었다. 딘즈데일은 자기의 죄를 세상에 밝히지 못한 죄악감에 사로잡혀 참혹하리 만큼 고통을 받는다. 그는 남모르는 낙인을 가슴 속

깊이 짙은 채 참회와 자학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 세인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쓰러지며 무거운 가책의 짐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된다. 결국 덤즈데일로 하여금 대중 앞에서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구원의 과정을 제시해준다. 원죄 이후 구원이라는 것에 합당치 않은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섭리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됨을 그는 덤즈데일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인간의 죄악과 타락성은 인간의 과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드러내고 승화시킴으로써 선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칼빈주의의 예정론에 의해 이미 택하심을 입은 자는 비록 죄와 악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 불완전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섭리 안에서 구원받게 됨을 의미한다. 본 작품에서 호손의 의도가 칼빈주의 예정론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 예정론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받아들여 사랑 없는 냉혹한 교리주의 사회를 만든 청교도 사회를 비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호손은 덤즈데일 뿐만 아니라 칠링워스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당시 청교도 사회를 비판하고자 했다. 따라서 칠링워스의 대화에서 청교도 사회의 비판이라는 자신의 표면적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예정론을 인정하는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자는 영원한 영광을 얻기로 예정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하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데 덤즈데일이 처형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임에도 더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갖고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므로 덤즈데일이 마지막 고백을 한 후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호손은 다시 한번 예정론을 인정한 셈이 된다. 고백을 통한 참회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덤즈데일의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으며 그랬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확신이 그로 하여금 고백을 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비평가에 따라서는 덤즈데일의 최후의 고백을 그의 구원의 근

거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스티프스의 주장처럼 딘즈데일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고백이 있었기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는 이미 선택을 받은 상황이었고 마지막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호손이 딘즈데일의 최후의 고백 장면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하나는 비록 범죄한 인간이지만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 진정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예정론을 알리고자 함이고, 다른 하나는 딘즈데일의 이중적인 삶의 정체를 벗기면서 당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논자는 호손이 『주홍글씨』에서 정통 칼빈주의 입장에 서서 딘즈데일과 그 외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당시의 사회가 안고 있었던 모순을 비판하고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제시함으로써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올바른 삶의 방향과 진실의 빛을 밝혀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김영철. 『*Nathaniel Hawthorne and His Concept of Salvation*』. 서울: 형설출판사, 1981.
- 김용철. “Hawthorne’s Treatment of the ‘Fortunate Fall’ in *The Scarlet Letter*” 『영어 영문학』, 16호. 한국영어영문학회, 1965.
- 김하진. 『주제별 칼빈주의』.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89.
- 박영의.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 연구: 다양한 접근 방법』. 한국호손학회, 서울: 한신문화사, 2000.
- 여영돈. 『*The Scarlet Letter*의 상징과 죄의 성격』. 효성여대연구논문집, 1973.
- 장왕록. 『*N · Hawthorne: The Scarlet Letter*』. 서울: 신아사, 1993.
- Brodhead, Richard H. *Hawthorne, Melville, and the Novel*. Chicago: Chicago UP, 1982.
- Crews, Frederic C. *The Sins of the Fathers: Hawthorne’s Psychological Themes*. London: Oxford UP, 1966.
- Fogle, Richard H. “Realms of Being and Dramatic Irony” with *Essays in Criticism Annotated with Critical Introduction* by Wang-Rok Chang. Seoul: Shina-sa, 1983.
- Foster, Dennis. “The Embroidered Sin: Confessional Evasion in *The Scarlet Letter*.” *The Scarlet Letter*. Norton, 1988.
- Gerber, John C. “Form and Content” with *Essays in Criticism Annotated with Critical Introduction* by Wang-Rok Chang. Seoul: Shina-sa, 1983.
- Hawthorne, Nathaniel. *The Scarlet Letter with Essays in Criticism Annotated with Critical Introduction* by Wang-Rok Chang. Seoul: Shina-sa, 1983.

- Howard, Leon. *The Literature and the American Tradition*.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60.
- Lawrence, D. H. *Studies in Classic American Literature*. Harmondsworth: Penguin, 1977.
- Leavitt, Charles. *Nathaniel Hawthorne's the Scarlet Letter*. New York: Monarch P, 1965.
- Levin, David. "The Scarlet Letter" with Essays in Criticism Annotated with Critical Introduction by Wang-Rok Chang. Seoul: Shina-sa, 1983.
- Male, Roy R. *Hawthorne's Tragic Vision*. New York: Norton, 1957.
- Martin, Terence. *Nathaniel Hawthorne*. Boston: Trayne Publishers, 1965.
- Porte, Joel. *The Scarlet Letter: The Dark Blossom of Romance*. New York: Norton, 1978.
- Shulman, Ernest. *The Scarlet Letter: The Scarlet Letter as a Love Story*. New York London: Norton, 1978.
- Shulman, Robert. "The Artist in the Slammer: Hawthorne, Melville, Poe and the Prison of their Times." *Social Criticism and Nineteenth Century American Fiction*. Columbia: Missouri UP, 1987.
- Spiller, Robert E. *The Cycle of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Macmillan, 1955.
- Stubbs, John C. *The Scarlet Letter: A Tale of Human Frailty and Sorrow*. New York: Norton, 1988.
- Tuner, Arlin. *Nathaniel Hawthorne*. New York: Barnes & Nobels, 1961.
- Waggoner, Hyatt H. "Three Orders: Natural, Moral, and

*Symbolic" with Essays in Criticism Annotated with
Critical Introduction by Wang-Rok Chang. Seoul:
Shina-sa, 1983.*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에 나타난
딴즈데일의 죄와 구원

양 자 미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지도교수 김 경 님)

(국문초록)

본 논문은 *The Scarlet Letter*의 *Dimmesdale*에서 나타난 죄, 고통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죄와 인간의 정신에 미친 죄의 영향에 관한 호손의 집요한 관심을 다룬다. 본 논문은 그의 정신 생활의 자극제가 된 자기비하, 자기극기 그리고 자기혐오 등과 같은 과도한 자아의식으로 인해 몹시 고통을 받고 있는 딴즈데일의 성격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 서론 부분에서는, 17세기 뉴잉글랜드 지방과 청교도의 양상에 대한 일반적인 일별이 이루어진다. 본론은 딴즈데일의 죄와 타락 그리고 그의 갈등과 구원의 추구 등의 두 개의 *sections*로 구성되어 있다. 결론 부분에서는, 호손이 독특한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정통 칼비니즘의 관점에서 죄와 구원이라는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들을 연구하였음을

제시한다. 호손은 인간의 죄의 속성에서 비롯된 많은 비도덕적인 문제들을 *The Scarlet Letter*를 통해 보여준다. *The Scarlet Lette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칼비니즘이 주장한 것과 같이, 일단 신의 구원을 받은 자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호손의 주요 인물들이, 하나의 상대적 배치의 일부분으로서 상호의존적이며, 17세기 청교도 사회의 제한된 상황이 오히려, 이 책에 탁월한 통일성을 부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논문은, *Hester Prynne*, *Dimmesdale*, *Chillingworth*와 청교도 사회의 복잡한 상호관계가 *The Scarlet Letter*의 구조에 풍부한 바탕을 제공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본 연구는, *Dimmesdale*이, 수많은 고통을 겪지만, 그는 자신에 대한 공적인 이미지를 희생시키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참회가 없는 고통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호손의 관점이, 정통 칼빈주의 사고와 일치하고 있으며 뉴잉글랜드 지방의 청교도에 대한 그의 비판은, 그의 시대의 청교도가, 정통 칼비니즘의 관점에서 볼때는 왜곡되었다는 그의 인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끝으로 저자는, 호손이 정통 칼빈주의 입장에 서서 딤즈데일과 그 외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당시의 사회가 안고 있었던 모순을 비판하고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삶의 방향을 지시해 준다고 생각한다.